

다산포럼

줄기세포 비망록



황 상 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학사

‘황우석 사태’가 불거지게 된 한 가지 계기는 난자 문제였으며, 특히 연구팀 내 여성연구원들의 난자 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복제배아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난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연구의 중요한 제한점이자 문제점이었다.

지난 2004년 2월 황 교수팀이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에는 난자 242개를 썼다고 되어 있다. 논문이 발표되자 그 많은 난자가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때때에 의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 제기와 해명 요구가 잇달았다. 이에 대해 황 교수 측은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 뿐 구체적인 해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던 차인 그해 5월 6일 ‘네이처’는 ‘한국의 줄기세포 스타들이 윤리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황 교수팀의 여성연구원 2명이 연

구에 난자를 제공했다”라고 보도했다. 네이처는 그 근거로 여자대학원생 K씨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했다.

네이처는 “K씨가 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영어 실력이 나쁜 탓에 오해가 생긴 것으로 난자를 기증한 사실이 없다며 인터뷰 내용을 부인했지만 첫 인터뷰에서 난자를 채취한 병원 이름을 말했고 이미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난자 제공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네이처의 보도에 대해 황 교수는 “연구실 직원 중 누구도 난자를 기증하지 않았다. 네이처 기자에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네이처의 왜곡 보도는 연구성과를 경쟁자인 사이언스에만 실은 데 대한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대응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5월 27일 박기영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논문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이언스에 논문을 투고할 때 윤리적 검토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황 교수를 적극 옹호했다.

이후로도 시민사회단체들과 한국생명윤리학회 등이 난자 사용 문제에 대한 해명과 공개 토론을 촉구했지만 황 교수는 계속 묵살하는 태도를 취했다. 난자 문제에 관한 결정적인 타격은 황 교수 연구에

비판적인 측이 아니라 최대 지원자이자 공동연구자인 제럴드 세튼 교수에게서 날아왔다.

MBC 피디수첩이 줄기세포 낱조 문제를 거의 밝혀가던 2005년 11월 12일, 세튼은 자신이 소속한 피츠버그 대학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20개월 동안 황 교수와 해운 공동연구를 윤리적 문제 때문에 중단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구체적인 이유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는 황 교수가 여성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중추관계에 있는 연구원의 난자를 제공받는 자체가 강압을 의미하며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 뒤로도 문제가 없다가 강변하던 황 교수는 피디수첩이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을 방송한 이틀 뒤인 1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난자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세계줄기세포포럼 소장 등 교수직 이외의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두 여성연구원이 난자를 기증한 것은 사실이다. 그 중 한 명인 P씨가 찾아와 난자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연구원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난자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교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

다. 또 다른 여성연구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그 뒤 네이처 기자가 한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했다고 밝혔다면 확인을 요청했다. 두 연구원에게 물어봤더니 난자 제공을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이 공개될지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네이처에 연구원들의 난자 제공을 밝혀야 했음에도 제공자 한 명이 강력히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청했고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달리 답변했다.”

요컨대 황 교수는 연구원들의 난자 제공 제의를 거절했고 네이처 취재 시에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연구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숨겼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황 교수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여러 직책에서 사임했다. 황 교수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잘 짜인 각본과 정치 9단 뺨치는 연기라고 해야 할까? 각본 작성에는 어처구니없게 당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도 관여했다.

그 뒤 온갖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규명한 바에 의하면, 여성연구원 P씨는 황 교수 차로 함께 병원에서 가서 난자를 채취했고, 다시 황 교수와 실험실로 돌아왔다. 난자 사용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 앞서 연구(자)의 기본인 진실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양동욱의 S스토리

마음의 마술



양 동 옥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지난해 성 학회의 학술발표대회 때 있던 일이다. 주제 발표를 앞두고 있던 필자에게 잘 알고 지내던 비뇨기과 의사가 다가와 무언가를 건넸다. 네모 모양의 조그만 상자였다. 여러동질하여 무엇이나고 묻는 내게, 그가 상자를 열어 얇은 종이처럼 생긴 것을 꺼내더니 하나 먹어보라고 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동안 발기부전 치료제는 주로 알약이었는데, 이번에 얇은 종이 껍처럼 붙여 혀에 녹여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는 것이다. 필자의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기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을 이유가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성 교육자로서 발기부전 치료제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그의 논리적인 필에 빠져, 과연 발기부전 치료제를 여성이 먹으면 어

떤 일이 벌어질까하는 호기심에 빠져 냉큼 하나를 꿀꺽했다.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는 혀에 대자마자 사르르 녹았고 곧바로 입안이 상쾌해졌다. 약물에 대한 큰 거부감은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몇 분 정도 지난 후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실내가 덥게 느껴지고 이마에 땀이 나기 시작하며 가슴이 답답했다. 급기야 호흡이 빨라지면서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밖으로 뛰쳐나가 가슴 가득 신선한 바람을 쐬고 싶었다. 문제는 곧 주제발표를 해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마음을 진정하려 노력했지만, 달아오른 얼굴과 가쁜 호흡으로 인해 떨리는 목 소리를 숨기지 못한 채 호기심의 짓궂음을 치르듯 만족스럽지 못한 발표를 해야만 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필자는 그 의자에게 특달같이 달려가 따지기 시작했다.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가 여성에게도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약을 먹었다고 했느냐며, 그 약 때문에 마치 외출 타고를 하듯 떨면서 발표를 했다고 호흡을 토로했다. 그는 깔깔깔 한참을 웃더

니 보란 듯이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를 자신의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 그냥 필름형 구강정결제인데 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이야긴즉슨 이렇다. 의학 관련 학회가 열리면, 제약회사에서는 홍보 칸막이를 설치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곤 한다. 물론 약품을 나누어주는 것은 불법이기에 주로 책자를 이용해 약물의 효능 홍보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기 시작한 제약회사에서 자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겉표지 부분에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쓰고 그 내용물에 필름형 구강정결제를 넣어서 간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했다. 그것을 전혀 몰랐던 필자는 이곳을 의사의 진년에 꿀꺽 삼켰던 약물이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굳게 믿어버렸다.

취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하고 황당했던 경험이었다. 실제로는 구강정결제를 먹었을 때도 마치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은 것처럼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위약 효과 또는 영문 이름을 그대로 써서 플라시보(placebo) 효과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설명했던 플라시보 효과와 필자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플라시보 효과는 의학계에서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인 것처럼 가장하여 환자에게 복용하도록 했을 때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것을 말하는 데, 그 밑바탕에는 마음이 마술을 부리고 있다. 다시 말해, 의학 성분이 전혀 없는 약이라고 그 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는 환자의 마음(이 약을 먹으면 내 병세가 나아질 거야)이 신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발기부전이 어느 정도 치료된다고 한다. ‘나 스스로 노력해보고 잘 안되면 이 약을 먹으면 되지.’라는 약물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성공적인 수행을 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즉, 심리적 기대에 신체가 부응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은 곧잘 마술을 부린다. 서로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 배려는 자신이 가져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만들고 곧바로 생활을 생기 있게 만든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긍정의 믿음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바꿔버리는 것이다. 심리적 믿음이 위약 효과를 가져오듯이, 자신과 주변에 대한 긍정의 믿음이 삶의 초석이 된다.

기 고

국내 유일 힐링서비스 ‘창평현청’을 아시나요?



이 기 환
담양군 부군수

지난해 10월 18일, 아시아 최초의 슬로 시티 담양군 창평면 삼지내마을에 창평현청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창평현청은 관광시설이 아닙니다. 공적인 행정기구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해맑은 미소로 반겨주는 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힐링서비스를 지향하는 공적인 행정기구라고 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창평현청에 관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확히 이곳에서는 기존 창평면사무소와 같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창평면사무소의 행정서비스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창평현감이 이곳에서 관광객의 방문을 기다리

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면사무소와 달리 옛 한옥의 모습으로 신축하여 창평현청이란 현판을 걸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구 창평면사무소 건물이 노후하여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던 터에 이곳에 창평현청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창평현청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창평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창평현의 중심지로 수많은 학자와 걸출한 정관계 인물을 배출하고, 일제 강점기에는 의병 활동으로 치열한 항일 투쟁을 전개했던 역사와 총질의 고장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높은 곳입니다. 그 때문에 창평현청 복원으로 옛 창평현의 영화를 추억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또한, 창평현청을 복원하면 아름다운 전통가옥과 3.6km에 이르는 돌담길, 발효음식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시아 최초의 슬로 시티 삼지천 마을에 킬링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여론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가 시작되었고, 담양군이 이러한 주민 여

론을 수용하면서 창평면사무소와 창평현청을 접목한 창평현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창평면사무소라는 공적인 행정기구의 명칭 대신 창평현청이란 현판을 쓰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적인 행정기구의 명칭을 지자체 마을대로 바꾸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꽤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점과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충분히 불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창평현청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기관 건물에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관광시설을 유치·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부분 관광시설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입장료를 받는 곳이라도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 곳이 많고 심지어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쇠락한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창평현청은 면사무소 운영예산

이외에 단 한 푼의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통방식의 건축물은 유기그릇과 같습니다. 유기그릇은 계속 사용하면 아름답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때가 끼어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전통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기거하지 않으면 유지관리가 더욱 힘들습니다.

이렇듯 공공디자인의 가장 큰 가치는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은 모두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창평현청처럼 큰 예산과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들이지 않으면서 지역 관광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슬로시티 삼지천 돌담길을 걸으며 담소를 나누보시지요. 옛 마을을 돌아보고 창평현청에서 현감을 만나 차 한 잔 나누면서 창평의 옛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청아하고 고즈넉한 창평의 기운이 당신의 마음을 씻어드릴 것입니다.

社 說

정부·여당, 문화전당 발목잡기 도를 넘었다

정부·여당의 아시아문화전당 발목잡기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해할만한 명분도 없이 개관 준비작업을 마비시키면서까지 법통과를 저지하는 것은 상식 이하이자 오로지 ‘광주를 위한 법’이라 통과시켜 주지 못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몽니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오로지 ‘광주를 위한 법’이라 통과시켜 놓고 갑자기 정부·여당이 태도를 바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탄핵을 걸더니 이번에도 발목을 잡고 말았다.

당시 합의한 안은 문화전당이 독립할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운영하고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와 지역민의 바람을 담은 야당안으로 누가 봐도 무리가 없는 요구다.

반면에 정부는 문화전당을 곧바로 법안이나 기관에 위탁·운영하지는 주장인데 초기에 재정은 물론 콘텐츠마저 취약한 상황에서 부실운영되고 활성화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가적 손해일 뿐이다. 국가기관을 국가에서 운영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줄다리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문화전당 건립은 10년 전 논의가 돼 시작된 사업으로 이제 와서 논란거리가 될만한 특혜도 아니다. 지역이나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며 전체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상임위 소위에서 여야와 정부 합의를 통과시켜 놓고 갑자기 정부·여당이 태도를 바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탄핵을 걸더니 이번에도 발목을 잡고 말았다.

당시 합의한 안은 문화전당이 독립할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운영하고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와 지역민의 바람을 담은 야당안으로 누가 봐도 무리가 없는 요구다.

전남 F1 재앙 현실화 빛더미에 위약금까지

F1대회 주관사인 포물러원 매니지먼트(FOM)가 전남 F1 조직위원회에 2015 F1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데 따른 위약금을 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FOM이 올해 F1대회가 열리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이 F1 조직위에 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FOM은 F1 조직위가 지난해 11월 까지 2015 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하기 위한 신용장을 외국은행에 개설하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직위는 ‘2년치 개최권료’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돼 있으며 1년치 개최권료만 4300만 달러(472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FOM이 요구한 위약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계약상 정해진 2년치 개최권료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록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2년

치 개최권료가 무려 944억 원이나 되는 만큼 적지 않은 위약금을 내야 할 형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남 F1대회는 지난 4년 동안 빛잔치의 연속이었다. 4차례 대회를 치르면서 발생한 누적적자가 1910억 원, 경주장 및 도로 건설 등에 쏟아부은 돈만 8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위약금까지 물게 된다면 빚에 빚을 저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F1 조직위 측은 이날 말 FOM 본사가 있는 영국을 방문해 בני 에클스던 회장 등 관계자들과 협상할 예정이라고 하니 위약금을 물지 않거나 최소화하도록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아울러 2012년, 2103년 F1대회 때도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현금으로 개최권료를 지급한 만큼 신용장 미개설을 이유로 위약금을 내라는 FOM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위약에 따른 FOM 측의 소송전에도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개인차는 다소 있겠지만 대다수는 국민(초등)학교와 중·고·대학교... 모두 4차례의 졸업식을 치른다. 그중 국민(초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부르는 ‘졸업식 노래’는 각별하다. 광복의 여운이 채가시지 않은 1946년에 동시 ‘반달’로 유명한 윤석중 선생이 작사하고, 동요 ‘씩씩장’을 만든 정순철 선생이 작곡한 노래이다.

교장 선생님에 200여 명의 졸업생을 일일이 강당 무대로 올려 졸업장을 수여했고, 판에 박은듯한 송사·답사도 없었다. 대신 졸업생들이 감사공연을, 재학생들이 축하공연을 무대에서 울동과 함께 선보였다.

졸업생들이 015B의 ‘이젠 안녕’에 맞춰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까요...”라고 노래하자, 재학생들은 비틀즈의 ‘렛잇비’(Let it be)를 개사해 “이

졸업식

꽃다발을 한아름 선 사합니다...”라고 재학생들이 선창하면, 졸업생들이 2월 “잘 있거라 아우들이 정든 교실이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를 이어 부른다. 그리고 3월은 모두 입을 모아 “...넋 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이 다음에 우리들도 다시 만나세”로 끝을 맺는다.

졸업식만이 없는 국민(초등)학교 졸업식은 울먹이는 재학생 송사와 마찬가지로 졸업생 답사, 그리고 ‘졸업식 노래’를 부르다 울음바다가 됐던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지난 6일 중학교 문을 나서는 아이들의 졸업식장을 찾았다. 졸업식장 분위기는 30여 년 전과 천양지차(天壤之堯)였다.

제 못 볼 생각하니 정 말 눈물나네요 보고 싶을 거예요 선배님 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이 거짓말...”라고 화답했다. 후배들의 재치있는 노랫말은 졸업생은 물론 졸업식장을 메운 모든 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했다.

학교 졸업식이 기존의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탈피해 재미가 있는 학생 중심의 축제문화로 승화되고 있다. 신세대의 감각에 맞게 졸업식 문화 역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청운(靑雲)의 꿈을 품은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191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8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